Le Grand Macabre

- □□

정보

György Ligeti, Le Grand

Macabre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 (György Ligeti, 1923–2006)
작품명: Le Grand Macabre
대본: 미하엘 메슈케 (Michael Meschke)와 리게티, 미셸 드 겔데로드 (Michel de Ghelderode)의
희곡 La Balade du Grand Macabre를 바탕으로 함
작곡 시기: 1974–1977년
개정: 1996년 개정판
원작판 초연: 1978년 4월 12일, Stockholm Royal Opera. Elgar Howarth 지휘, Michael Meschke 연출
개정판 초연: 1997년 7월 28일, Salzburg Festival. Esa-Pekka Salonen 지휘, Peter Sellars
연출
장르: 2막 4장 오페라, 작곡가가 말한 ‘anti-anti-opera’
출판: Schott 연구용 총보 ED 8522, 독일어 리브레토 BN 3501-70
소요 시간: 약 120분

Wikipedia: Le Grand Macabre

개요
Le Grand Macabre는 죄르지 리게티가 1974–1977년에 쓴 2막 4장 오페라다. 죽음의 사자 네크로차르가
브뢰헬란트에 나타나 자정의 혜성과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지만 , 네 장면은 무덤가의 연인들, 천문학자 부부의 집, 고고 왕자의 궁정, 자정 이후의 혼란으로 이어지며 예언보다 인간의 욕망과 생활을 오래 붙잡는다. 1996년 개정판은 원작판의 텍스트와 음악을 다듬어 다른 공연판을 이루었다.

출판 정보

Schott는 작품의 연구용 총보를 ED 8522로, 독일어 리브레토와 공연 자료를 BN 3501-70으로 식별한다. IRCAM과 리게티 공식 작품 DB는 1974–1977년 작곡과 1996년 개정이라는 연대를 함께 제시하며, 전체
구조를 2막 4장으로 기록한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대 (大) 마카브르 ’ 또는 ‘거대한 죽음 ’이 쓰이지만, 출판
표제는 Le Grand Macabre다.

소요 시간

Schott와 IRCAM이 안내하는 전곡 길이는 약 120분이다. Philharmonie de Paris가 소개하는 47분 안팎의 프로그램은 자동차 경적 서곡, 일부 장면과 발췌곡을 묶은 콘서트용 구성으로, 2막 4장 전곡과는 범위가 다르다. 장면 사이의 대사와 무대 소품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상연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대본과 두 판본

리게티는 1972년 무렵 인형극 연출가 미하엘 메슈케와 협업하면서 드 겔데로드의 희곡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희곡의 그로테스크한 군중과 성적 희극을 오페라용 대본으로 다시 구성했고, 리게티는 말장난 ·의성어 · 노래와 말의 경계를 음악으로 확장했다. 가상 국가 브뢰헬란트의 이름은 피터르 브뤼헐과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회화가 보여 주는 군중과 괴물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 회화적 연상은 작품의 그로테스크한 무대 분위기를 이해하는 한 단서다.

기본 대본은 독일어로 쓰였고, 1978년 Stockholm Royal Opera 초연 제작은 스웨덴어로 공연되었다 . 1997 년 Salzburg Festival에서 초연된 개정판은 영어 공연 자료를 사용했다. 따라서 공연 언어는 제작과 판본에
따라 달라지며, 독일어 ·스웨덴어 ·영어 자료가 함께 유통된다.

리게티는 1996년 개정판을 약 열 달에 걸쳐 완성했다. 개정 과정에서 2장과 4장의 텍스트를 줄이고 일부
말하듯 진행되는 대목을 음악화했으며 , 연주하기 까다로운 구간과 ‘유토피아적 ’ 장면의 균형도 손질했다. 원작판은 1978년 4월 12일 Elgar Howarth 지휘와 Michael Meschke 연출로 스톡홀름에서 초연되었고 , 개정판 세계초연은 1997년 7월 28일 Esa-Pekka Salonen 지휘와 Peter Sellars 연출로 잘츠부르크에서 열렸다. 잘츠부르크 공연의 무대 ·의상 ·조명은 George Tsypin, Dunya Ramicova, James F. Ingalls가 맡았다

.

배역과 성악 배치

Nekrotzar: 베르디 바리톤. 자신을 죽음의 사자이자 드라큘라로 내세우며 혜성의 시간을 선포한다

.

Piet vom Faß: 고음 부포 테너. 네크로차르를 따라가면서 그의 권위와 술 취한 허세를 함께
드러낸다.
Astradamors: 베이스. 천문학자이자 메스칼리나의 남편으로, 가정의 폭력과 종말의 소동 사이에 놓인다.
Mescalina: 드라마틱 메조소프라노 . 잔혹한 부부 희극을 이끌며 네크로차르와 충돌한다. Amanda·Amando: 각각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 무덤가의 연인으로 등장해 사적인 욕망을 종말의 선언보다 먼저 무대에 놓는다.
Prince Go-Go: 소년 소프라노, 소프라노 또는 카운터테너 . 흰 장관과 검은 장관 사이에서 실권 없는 군주를 연기한다.
Venus: 고음 소프라노. 궁정의 관능과 신화적 과장을 더한다.
Gepopo: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비밀경찰의 보고를 끊임없이 이어 가며 공포를 기계적인 속도로 바꾼다.

흰 장관과 검은 장관, 비밀경찰, 군중, 무대 뒤 혼성 합창이 주역들을 둘러싼다. 높은 성부와 낮은 성부의
배치는 전통 오페라의 영웅 ·악당 도식을 비튼다. 고고 왕자의 높은 음역은 어린 통치자의 불안정함을 , 게포포의 극단적인 콜로라투라는 관료적 보고가 지닌 비인간적인 속도를 만든다. 네크로차르의 바리톤은 죽음의 장엄한 선언과 술에 취해 무너지는 우스꽝스러운 권위를 한 인물 안에 겹친다.

편성

목관: 플루트 3(제 2·3 플루트는 피콜로 겸임), 오보에 3(제 2 오보에는 오보에 다모레, 제 3 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 겸임), 클라리넷 3(제 2 클라리넷은 E♭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제 3 클라리넷은 베이스
클라리넷 겸임), 바순 3(제 3 바순은 콘트라바순 겸임)
금관: 호른 4, C 트럼펫 4(제 1·2 파트는 D 피콜로 트럼펫을 선택적으로 겸함), C 베이스 트럼펫, 트롬본 3, 콘트라베이스 튜바
타악: 네 명의 타악 주자. 실로폰, 비브라폰, 글로켄슈필 , 마림바, 팀파니와 함께 다양한 소품을
연주한다.
건반 ·현악 ·기타: 첼레스타 (하프시코드 겸함), 그랜드 피아노 (전기 피아노 겸함), 전자 오르간 (리갈
겸함), 만돌린, 하프, 현악기 3.0.2.6.4
합창: 무대 뒤 혼성 합창과 군중 장면의 합창

타악 파트에는 자동차 경적 12개, 전기 벨, 알람시계, 사이렌, 여러 휘슬, 장난감, 냄비와 깨지는 접시, 권총, 사자 울음 악기 등이 들어간다. 생활 소품은 오케스트라의 리듬과 음색을 직접 구성하는 악기다. 자동차 경적과 사이렌이 궁정의 팡파르를 대신하고, 장난감과 알람시계가 종말의 시간을 희극적인 신호로 바꾼다.

1막: 무덤가와 천문학자의 집

첫 장면의 브뢰헬란트 무덤가에서 Amanda와 Amando는 세상의 종말보다 자신의 사랑에 몰두한다. 술꾼 Piet vom Faß가 나타나 Nekrotzar를 만나고, 네크로차르는 자정에 혜성이 떨어져 세계가 끝난다고 선언한다. 네크로차르에게 피트가 붙으면서 죽음의 행렬은 장엄한 개선식이 아니라 취객이 뒤섞인 소동이 된다.

둘째 장면은 Astradamors와 Mescalina의 집으로 옮겨 간다. 천문학자의 연구와 메스칼리나의 가학적인 부부 놀이는 혜성의 예고와 나란히 놓인다. 네크로차르가 집에 들어오고 메스칼리나가 죽은 뒤, 피트와
아스트라다모르도 종말의 행렬에 합류한다. 세계적 재난을 예고하는 인물이 가장 사적인 욕망과 신체 희극에 휘말리면서 , 작품의 죽음은 추상적인 운명이 아니라 집 안의 난장으로 바뀐다.

자동차 경적 서곡은 이 전환을 먼저 들려준다. Philharmonie de Paris는 경적의 행렬을 Monteverdi의 L'Orfeo에 놓인 트럼펫 토카타의 패러디로 설명한다. 오페라의 장엄한 문턱에 교통 신호를 세우는 순간, 리게티는 성스러운 음악과 거리의 소음을 같은 극적 재료로 취급한다.

2막: 궁정과 자정 이후
셋째 장면의 무대는 Prince Go-Go의 궁정이다. White Minister와 Black Minister는 정책보다 서로의 말꼬리를 붙잡고, 비밀경찰 수장 Gepopo는 혜성과 군중의 움직임을 눈부신 콜로라투라로 보고한다. 네크로차르가 궁정에 들어와 자정의 종말을 선포하지만 , 피트와 아스트라다모르스가 술을 권하면서 그의

위엄은 계속 흔들린다. 궁정의 행렬과 술자리, 정치적 구호와 무대 소품의 소음이 하나의 과장된 쇼로 합쳐진다

.

넷째 장면은 자정이 지난 뒤 시작된다. 브뢰헬란트는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는지 살아남았는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다시 먹고 마시고 다툰다. 네크로차르는 세계를 끝냈다고 믿으려 하지만 술과 실망 속에서 힘을 잃고 사라진다. 마지막에 연인과 군중의 일상이 계속되는 장면은 ‘죽음이 죽었다 ’는 농담과
언젠가는 죽더라도 지금은 살아 있다는 태도를 동시에 남긴다. 결말은 낙관적 구원이나 죽음의 완전한 패배보다, 살아 있음이 기괴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감각을 앞세운다.

음악적 콜라주와 ‘anti-anti-opera’
리게티의 콜라주는 한 양식을 다른 양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몸짓을 한 무대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Philharmonie de Paris가 언급하는 Beethoven의 Eroica 4악장, 래그타임, 플라멩코, 삼바, 비잔틴 찬가, 헝가리 민요, 팡파르와 차차차가 베르디풍 성악, 기계적 반복, 거친 말소리와
나란히 놓인다. 이 양식들은 과거 음악을 그대로 전시하는 대신, 궁정의 권력 놀이와 거리의 소음이 같은
시간에 울리도록 만든다.

‘anti-anti-opera’라는 표현은 오페라의 관습을 안에서 비틀고 다시 작동시키는 태도를 가리킨다. 리게티는 아리아, 합창, 콜로라투라 , 행렬, 궁정 장면 같은 전통적 장치를 과장하고 뒤틀면서도 그 장치가 지닌 극적 힘은 보존한다. Bayerische Staatsoper가 설명하듯이 , 작품은 오페라를 반대하는 태도마저 다시 패러디한다 . 관객은 웃음을 따라가다가도 게포포의 공포 어린 보고, 네크로차르의 무너지는 목소리, 자정 뒤의 텅 빈 침묵에서 인간의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

콘서트용 발췌와 독립 작품

The Mysteries of the Macabre는 게포포 장면을 중심으로 만든 독립적인 콘서트용 발췌곡이고 , Macabre Collage도 오페라의 여러 재료를 묶어 무대 밖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발췌곡이다 . 이 곡들은
콜로라투라와 소품 타악의 극단적인 대비를 짧은 시간에 보여 준다. 전곡은 네크로차르의 예고에서 자정 이후의 결말까지 인물 관계와 대사를 이어 간다.

주요 자료

György Ligeti 공식 작품 DB

Schott, Le Grand Macabre

IRCAM 작품 자료

Philharmonie de Paris Eduthèque

Bayerische Staatsoper, Die ganze Tragikomödie des Lebens

Salzburg Festival 1990년대 역사

Schott, Le Grand Macabre 시리즈